



# 21세기형 현대적 가족이란?

## 시트콤 <21세기 가족>과 <모던패밀리> 가족의 변화 "미리보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전형적인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평범"한 모습의 가족과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이미 변화한, 또 앞으로 변화할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번 호에는 이런 생각에 도움을 줄 만한 시트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21세기 진행이라며 보여주는 가족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앞 뒤 집에 모여 사는 아버지와 딸 네 집 식구들이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50대 후반의 아버지 덕후는 은퇴한 톱스타 연예인으로, 이혼 뒤 혼자 살다가 연예인 시절 10년 넘게 자신의 팬 클럽 회장이었던 은미와 1년 전 재혼해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은미는 뒷집 사는 큰딸 금표와 동갑내기로서 덕후와는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30대 중반의 금표 네도 재혼가정입니다. 첫 결혼에 실패한 전임주부 금표는 역시 이혼 경력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성기와 재혼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애쓰며 삽니다. 이 집에는 세 명

지난 3월 중순 케이블채널 tvN에서 시작한 <21세기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젊은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삼아 항상 참신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시도하는 tvN이 새롭게 내놓은 시트콤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여기서 보여주는 가족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내놓는 광고 문구들에서도 그런 포부 가 엿보입니다. "뻘한 이야기는 가라. 우리는 이들을 21세기 가족이라 부른다." "눈치 보고 차마 깨닫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속사정은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던 우리 가족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다루되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처럼 가식적이고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불편하고 켈끄러운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의 자녀가 있는데 성기와 금표가 각각 지난 결혼에서 얻은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고, 금표와 성기가 재혼해서 낳은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는 늘 힘이 세다." "새엄마뿐만 아니라 원래 가족이 웬수다." "21세기 자식(0)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 비뻔하다." "21세기 가족의 화두 - 性을 말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에피소드의 소재목들입니다. 아직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쾌함과 가벼움이라는 시트콤 장르의 특성을 심본 활용하면서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다뤄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것만 놓고 본다면, 21세기 전형적인 가족에게 이혼과 재혼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덕후네와 금표 네가 모두 재혼가정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혼이라는 건 별다른 갈등의 요소가 아닙니다. 금표 네 아이에게 새엄마, 새아빠의 존재는 그 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는 짐 엄마, 아빠처럼 스스럼없이 대합니다.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재혼가정이란 건 대하나 행동에서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새 할머니"의 관계도 너무나 쿨(?)합니다. 나이 어린 할머니를 부름스러워하기도 거부마사

지, 클럼, 장난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알고 챙겨주는 "철없는" 할머니에게 별명까지 붙여가며 금세 친해집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아무런 어퍼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재혼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다면 금표와 새어머니 사이 정도입니다. 동갑내기인 금표에게 "하나 엄마"라고 부르며 어른 노릇 하는 은미를 두고 금표가 증언거립니다. "우리 아빠하고 같이 산다고 진짜 우리 엄마 된 줄 아나!" 하지만 이 둘 사이도 그리 심각하거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이 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TV 드라마의 관심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나 가족들이 겪을 고뇌와 갈등을 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혼가정을 잘 꾸려갈지의 문제로 옮겨간 듯합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텔레비전의 대응이 라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성기 부부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너무도 대중한 부모·자식 관계라든지, 덕후와 금표 네가 한 데 모여 사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모계 중

십으로의 재편 등은 과장되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보여주는 것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가족>이 정말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점만 보어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려지는 내용은 우리 사회가 모두 용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TV 속에 그려질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시트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드(미국드라마) <모던패밀리> 인데요, 3년 전부터 미국 3대 지상파 네트워크 중 하나인 ABC에서 방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21세기가족>이 처음 방송되었을 때 미드 팬들은 <모던패밀리>를 배긴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을 정도로 두 드라마는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연상연하 재혼부부가 그렇고, 세 아이를 둔 팔네 가족 구성원들의 케릭터도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빌린 "모큐멘터리(mocumentary)"라는 방식까지 비슷합니다. 다만 더 추가된 것이라면, <모던패밀리>에는 아들이나 딸이 동성애자인데, 그 아들은 동성애자로서 파트너와 함께 베트남에서 임업한 딸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1세기가족>이 그려는 재혼가정에 덧붙여 <모던패밀리>는 동성애, 다문화의 요소까지 친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추기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입니다. 시청률에서도 언제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에게도 꽤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에미상이나 골든글로브상도 수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코스비쇼>와 비교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유쾌하게 그려지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가족 구성원들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다름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21세기가족>이나 <모던패밀리>가 이 시대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다가올 미래에 전형적인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두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뒷집만 지고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말세 타령을 하거나 "평범"한 모습을 벗어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교회 밖에선 이미 이런 가족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아쉬워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미 교회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21세기가족>과 <모던패밀리>, 비록 가벼운 시트콤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6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업으로 있는 미디어와 종교·로터,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평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아름다운 책

클로드 부종 글, 그림.  
최윤정 역. 비룡소 출판.

흔히들 그림책은 어린이가 보는, 그림이 많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림책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필수록 그 매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출판사장은 1980년대에 대학에서 회화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는데 어느 날 교보문고에 가서 영국 작가 칼스 키피의 그림책을 우연히 접하고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림책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지금은 그림책 작가이자 출판가로서 한국의 그림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클로드 부종의 아름다운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아이기의 즐거리보다는 주로 작품의 미학적 특성에서 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림책에는 세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다. 글의 언어, 그림의 언어, 그리고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언어입니다. 많은 작가는 주로 글의 언어에 의존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들은 글과 그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언어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글과 그림 언어를 더 잘 읽고 쓰기 위해서는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제3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독자는 그림책의 언어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부종은 제3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데 뛰어난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형 에르네스트와 아우인 빅토르라고 하는, 의인화된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에르네스트가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책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본문의 그림 내용을 장면별로 소개합니다.

- 1장면: 에르네스트가 책을 집에 가져옴.
- 2장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와 함께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함.
- 3장면: 책 속에서 자기와 같은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음.
- 4장면: 책 속의 배고픈 토끼에게 여우가 상냥한 당근 한 지루를 가져옴.
- 5장면: 책 속의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다고 있음.
- 6장면: 책 속의 어떤 토끼가 무시무시한 초록용을 때려눕힘.
- 7장면: 동생 빅토르가 그 장면을 보고 황홀해함.
- 8장면: 둘이 같이 다시 책을 들여다 봄.
- 9장면: 책 속의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홀리후프 속으로 뛰어들도록 훈련하고 있음.